

일본의 노거수 보존을 위한 캠페인

변 병 호/임업연구원 산림미생물과장

노거수를 보존하고 물려주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환경청의 조사로는 나무줄기의 둘레가 가슴높이에서 3m이상되는 거목으로 일본 전국에 약 5만5천8백 본이 있다. 이것은 자연이 일본에 남겨놓은 귀중한 유산으로 수령이 수백년 이상되는 나무들이다. 이들 나무의 건전도를 보면 17%가 불량하다고 한다.

※ 필자가 '94년 4월 하순 일본 출장중 매일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나무 호적조사

일본의 녹화센타는 거목, 명목의 호적조사(祿의 文化財調査)을 실시하였다.

환경청이 2년반전에 끝낸 「거수, 거목립조사」에 이은 조사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조사는 수세쇠약이 현저하여 보존을 위한 조치가 긴급히 요구되는 나무는 건강상태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다시말해 나무의 진료카드를 만들었다. 도도부현별로 거목, 명목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호제도의 유무, 수목의 크기등을 개별 조사 측정하고, 병해충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였다.

● 보호활동

「전국巨樹, 거목립회」가 설립되어 귀중한 거수, 거목림에 대해 전국 규모로 정보교환을 하고 구체적인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동회는 거수, 거목림을 「야생생물로의 돌도없는 중요한 서식환경으로서 일본 자연환경의 상징적 존재로 原生림 생태계의 일부분을 보존한 것과 같이 학술상의 가치가 높다」 「수백년간 인근주민들의 생활을 지켜본 그 존재는 옛부터 신앙 또는 예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지역의 상징으로 해서 사람들의 편안과 윤택을 준다」고 규

정.

거수, 거목림이 지역의 자연교육이나 도시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일 등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회원에는 국제일본 문화연구센터 소장 등 유명인들이 가을에는 동경에서 거목이야기 전국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7회에 걸쳐 행사를 연다.

● 신앙대상

巨木, 名木の 대부분은 신사나 사원의 경내

에서 어떤 형태이던 신앙의 대상이 되어 그 지역내에서는 대단히 귀중히 여겨온 나무들이다. 환경청에서 조사한 리스트에 의하면 5만5천8백본의 거목안에 祠堂, 神社의 門, 금줄등의 신앙대상물이 있는 곳이 12,456건 taboo등 금기가 있는곳이 761건, 거목에 얽힌 제사등이 있는곳이 1,230건등, 전체가 14,402건이 어떤 형태로든 사람과 연관이 강하게 맺어져 있다. 거목의 소유자도 제일 많은 것이 신사, 사원에 전체의 58%를 점하고 있다.